

전북

“수해 농작물 피해대책 마련 해달라” 덕진공원·건지산 명소만든다

환경단체 등 시민 참여 역사·문화·생태 보전 추진

정읍농민회·김제 주민  
재해 보상법 제정 요구

정읍시 농민회 회원들 30여명은 1일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달 폭우로 발생한 벼와 농작물의 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농민들은 “8월 9일 내린 440mm의 폭우로 정읍 들녘 1만ha가 휴경밭에 2~3일 잠기는 바람에 벼 수확량이 30~70%가량 줄어들게 됐다”며 정부에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재해 보상법을 즉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농민들은 또 “침수된 논이 농작물을 수확해도 기계 밟고 안 나올 현상이어서 농민의 속이 썩어가고 있다”며 전북도와 정읍시에 피해대책 특별예산을 편성하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시설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정읍시 농민회 회원들이 1일 정읍시청에서 지난 달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 100여명은 지난 달 29일부터 정읍시 감곡역 근처에서 “호남고속철도 공사로 인해 폭우로 배수로 물길

을 막혀 는 250여ha가 침수피해를 봤다”며 “시공사가 수확 예상량의 80%를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철도산업 발전기본법”에 명시된 ‘철도 시설유지보수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제시 봉남면 흥신리

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등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상담실 확대 운영과 공동육아나눔터·장난감 도서관” 등 상시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홍순진기자 parks@

익산~신리 철도 보수 민간위탁 반대

대책위 “시민 안전 위협” 계획 중단 촉구

철도공사가 ‘철도선진화 방안’에 따른 인력효율화를 이유로 철도 시설 보수업무를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우려하는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다.

익산~신리 철도 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 반대대책위는 1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익산~신리 구간 시설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시설유지보수 업무는

경험이 없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면 철도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며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유지 보수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철도산업 발전기본법”에 명시된 ‘철도 시설유지보수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라선 복선 전철 개통 전에 새로운 구간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 환

원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북발전의 계기가 될 전라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개통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가 30일 개통식을 무리하게 강행할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시설유지보수 업무가 민간업체에 위탁되는 것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철도공사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시행사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선거 실적을 위한 예비후보자

2011. 9. 1. 남원시장선거관리위원회



남원시장 재선거 예비후보들 공정 선거 다짐

10·26 남원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1일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준법선거 실천 협약식’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다짐했다.(사진)

남원시 선관위 주최로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 예비후보자들은 공명선거를 위해 금품·향응제공 등 돈선거를 배격하고 상대후보를 상호 존중하며 유권자를 위한 정책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강중성(민주), 김영권(무소속), 김재성(민주), 김정태(민주), 이한우(민주), 임근상(민주), 황의돈(민주), 최중근(무소속) 씨 등 8명의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남원시 선관위 관계자는 “재선거가 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치러지는 만큼 준법·정칙선거의 실천의지를 알려 정당당당한 경쟁으로 진행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속국악원 추석맞이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이 추석맞이 귀성·관광객을 위한 다채로운 전통예술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국립민속국악원은 10월 10일 오후 4시 국악원 예원당에서 ‘만월, 풍요로움을 빛다’를 주제로 사물놀이, 창곡, 기악, 무용 등의 공연을 펼친다.

보름달을 형상화한 민속 무용 ‘강강술래’는 한가위 놀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사물놀이 관군은 농사일에 대한 수고와 풍년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신명나는 어울림이 펼쳐진다.

창곡 춘향가 중 ‘관한투 인연-사랑가 대목’은 짧은 소리꾼 서진희 씨의 애절한 소리로 분위기를 돋운다.

남원 고랭지 명품 오미자 첫 출하

수도권 등에 직거래 판매

남원에서 오미자(五味子)가 올해 첫 수확됐다.

남원시는 운봉읍 화수리 화신마을 권북남(62)씨는 1만6500㎡에서 재배한 오미자를 최근 첫 수확해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서 직거래 판매했다.

남원 오미자는 지리산 일대 준고랭지(해발 400~700m)인 운봉, 주천,

인월, 아영, 산내면 등에서 120농가가 재배해 연간 180t을 생산, 17억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곳 오미자는 과육이 단단하고 향이 뛰어나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특히 오미자를 주원료로 하는 남원 ‘황진이쥬’는 지난 2008년 이용해 전국 전통민속주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오미자를 특화품목으로 지정을 받았다”며 “명품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뉴스 브리핑



군산 비응향 상인들 ‘바가지 요금’ 자정 결의

‘바가지 요금’ 때문에 관광객이 잘 찾지 않아 상권이 크게 위축된 군산 비응향(광주일보 8월 26일 11면 보도) 상인들이 자정 결의를 해 주목받고 있다.

군산 비응향 횡집과 상가 주인 100여명은 1일 새만금 도매 어시장 앞 주차장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과 진절 봉사, 가격 담합 금지

등 10개 항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비응향 번영회는 상점 주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비응향 횡집단지에는 지난해 4월 방조제 개통 이후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었지만 바가지 요금이 극성을 부리면서 손님의 발길이 끊긴 상태다.

전주 건강지원센터, 옛 서신동사무소로 이전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정혜정·이하 지원센터)가 옛 서신동사무소로 확장 이전해 1일 문을 열었다.

지난 2009년 개소한 지원센터는 그동안 ▲가족상담·교육·문화 등의 건강 가정사업 ▲저소득 한부모 가족·미혼부·청소년 한부모 가족·조손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역량 강화 지원사업 ▲집요

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등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상담실 확대 운영과 공동육아나눔터·장난감 도서관” 등 상시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2개 도시 시장단 익산서 영농체험

캄보디아 2개 도시 시장단 일행이 영농체험을 위해 익산을 찾았다. 1일 익산시를 방문한 캄보디아 프놈펜(Phnom Penh) 시, 시스폰(St. Treng) 시장을 포함한 일행 4명은 5일까지 익산시에 머물며

계 업체를 견학하고 익산시의 선진농업 정책을 배울 예정이다.

이한수 시장은 “캄보디아 농업이 기계화하면 연간 2조원 이상의 농자재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이들과의 농업교류를 확대해 농자재 수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증서 수여

고창군은 전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한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 일환으로 해외연수 장학생을 선발해 지난 31일 군청에서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선발인원은 ▲고창군 6명 ▲전북대 5명 등 총 11명이다. 고창군은 1인당 300만원씩 1800만원을, 전북대는 1인당 282만원씩 141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번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필리핀 바콜로드시에 위치한 라살대학교에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주간 교환학생으로 파견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 학생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 주고,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Advertisement for 'Naju Hyeonshin City' (나주혁신도시)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city and text about new history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Advertisement for 'Nara Gongin Jeonggasa' (나라공인중개사)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Jongang Gongin Jeonggasa' (중양공인중개사)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imang Gongin Jeonggasa' (금당공인중개사)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Sangmuji-gu Starbuck Building' (상무지구 스타벅스 빌딩)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